

#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

##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성 연 의원

안녕하십니까? 박 성 연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 
지난 8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119구급대의 인력 및  
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」  
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현재 각 시·도의 소방력 운영은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(행정  
안전부령)」과 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(소방청  
훈령)」에 따라 소방서 및 출동대별로 등급을 산정하고, 이에  
따라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1급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는 최대 2대, 구급대원은 최대 18명까지만 배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, 구급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서울의 경우 구급차 1대당 출동 및 이송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, 구급대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건의안은 119구급대의 현행 등급별 차량 기준을 상한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전환하여, 1급은 구급차 2대 이상, 2·3급은 1대 이상을 기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이를 통해 지역별 구급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차량 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.

아울러 구급대 인력 배치 기준을 구급차 1대당 최대 12명까지로 확대하여, 4인 1조 구급대 운영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이를 통해 심정지 등 중증환자 발생 시 충분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.

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본 건의안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